



# 광남일보



주간 제 8096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음력 4월 17일)

## 유권자 '선택의 시간'... 후보들, 막판 표심잡기 '총력'

민형배·이정현 등 통합특별시장 후보들 지역 부동층 공략 민주당 원팀론 vs 선거혁명 맞대결... 기초단체장도 세걸집 교육감 후보 정책 경쟁... 광산을 보궐선거도 표심잡기 사활

### 6·3 지방선거 D-1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선거전이 막판 총력전으로 치닫하고 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통합특별시장 출범 이후 지역 권력지형을 결정하는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이에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광주와 전남 전역을 누비며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 관련기사 3·4·10·19면

1일 지역 정치권과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감을 하루 앞두고 광주 도심과 전남 주요 거점을 집중적으로 훑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완도·무안·목포 등 전남 서남권 유세에 이어 이날 영암 합동유세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전남광주·제주 상생협력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하며 광역권 협력 메시지를 부각했다. 민 후보는 전북 산업 정책, 섬 지역 교통, 광주 균형발전 이등 지역 현안을 겨룬

하며 "민주당 원팀으로 현안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완도·장흥·순천·구례 등을 돌리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광주 시내와 월드컵경기장 일대 등을 중심으로 차광순회 유세를 이어가며 "30% 지지를 얻으면 광주·전남 정치구조를 바꾸는 선거혁명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AI·데이터산업, 신재생에너지, 광주공항 이전 부지 개발, 정부 특별지원금 20조원 순증 지원 등을 내세우며 일당 독점 구도에 대한 견제론을 전면에 세웠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곡성과 광주 도심을 오가며 표심을 공략했고, 최근 지하철 공사 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광주 건어물유동 종합상사, 북구청 일대, 전남대 후문, 무가사 앞 삼거리 등을 돌며 상인과 청년, 시민들을 만났다. 전남광주교육자치조례제정 운동연대와 정책협약도 체결하며 교육자치와 민생 중심 선거를 강조했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도 담양과 광주 급남



"꼭 투표 하세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에서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투표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한편 지난 주말 실시된 사전투표는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최고치인 23.51%의 투표율로 마무리됐다.

로·충장로, 유스퀘어, 수완지구, 송정역, 상무지구 등을 순회하며 무소속 비라미 확산과 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후보들도 막판 정책 경쟁에 나섰다.

김대중 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8년 예정된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G20 유치 전략과 연계

해 전남광주 전역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 행사장 1곳과 보조행사장 3곳을 비롯해 전남광주 전체 교육현장을 박람회 공간으로 활용하고, 80만 명 이상 방문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까지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정선 후보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 구축, 공공육아 진척률로 책임제 도입, '아시아의 보스턴'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최종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의 통합 연대에 대해 "갈등의 정지를 끝내고 교육 발전만을 위해 뭉친 실용주의 연대"라고 규정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

도 생활권 밀착 유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임문영 후보는 수완호수공원 '연합 줄기' 행사에 참여해 보행환경과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현장 데이터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 2면서 계속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전남광주 지방선거 고소·고발 난무... '당선돼도 불안'

교육감·단체장 선거 잇단 법적 공방... 격전지 위주, 의혹 제기·고발 다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곳곳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선거 후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목포·순천·담양·강진·신안 등 주요 격전지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교육감 선거에서는 김대중 후보의 과거 카지노 출입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후보 간 상호 의혹 제기와 맞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후보의 금품 제공 의혹과 상대 후보의 차명 재산 운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순천과 해남, 무안 등에서도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대상은 선거 캠프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

직까지 확대되며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성·완도·영광·영암 등에서도 허위 사실 공표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후보 간 접전이 이어지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고발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선 이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경우 단체장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목포시장과 영광·곡성·담양·신안군수 등 5명의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 낙마했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선거 이후에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자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유권자들이 후보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함께 살펴보는 성숙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looks@gwangnam.co.kr

## 전남, 전북 위기 대응 거점유통센터 확보

(주)완도바다 공모 선정... 가공·물류 연계 통합 유통체계 구축

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주관의 '2026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공모사업'에 (주)완도바다가 선정돼 전북 가격 하락과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전북 가공·유통 거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모 선정으로 완도군에는 총사업비 40억원(보조금 24억원 포함)이 투입돼 2028년까지 3년간 전북 가공 중심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 구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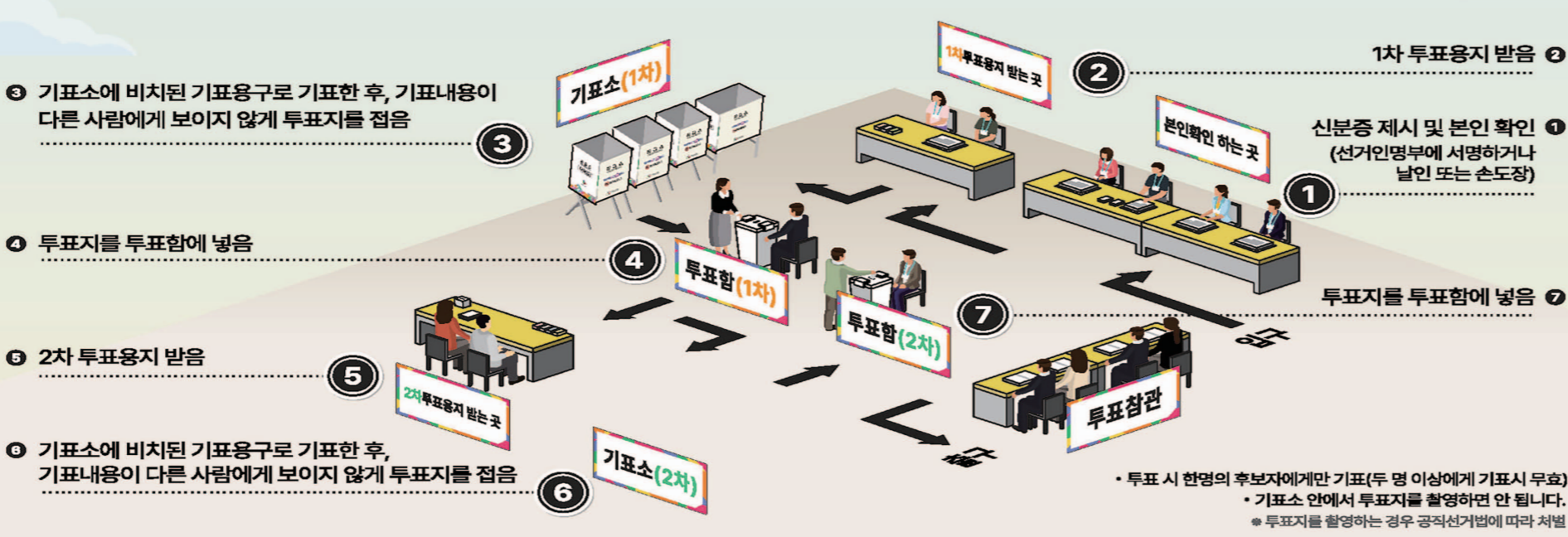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는 산지 수산물물의 집하·선별·가공·저장·포장·출하 기능을 통합 처리하는 시설로, 유통체계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

치를 높이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완도 전 FPC는 전북의 가공·물류 기능을 연계한 통합 유통체계를 구축해 기존 완전북 중심의 단순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북 가공품 개발과 유통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 공급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선정으로 3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잇달아 확보하는 성과가 거뒀다. 신안군 신안천사읍, 갈로씨푸드에 이어 완도군 완도바다까지 산지거점유통센터를 확보하며 수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 선거일 투표 안내

**일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거주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위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캡처 등 저장 이미지 사용 불가)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nec.go.kr)에서 확인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